



헤이쵸궁
제1차 대극전

大極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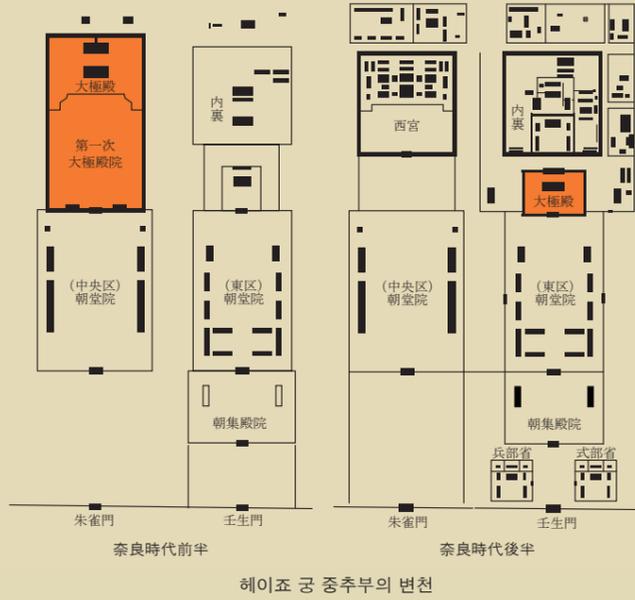
대극전 (大極殿) 이란

대극전(大極殿)이란 고대 궁도(宮都)의 중심 시설로써 원일조하(元日朝賀) 및 천황의 즉위 등 국가 의식을 행할 때 천황이 출어하는 장소입니다. 헤이조 궁(平城宮)에서는 조영 당시부터 구니 경(恭仁京)으로 천도할 때까지의 대극전(제1차 대극전) 과 헤이조 궁으로 다시 천도해서 나가오카 경(長岡京)으로 천도할 때까지의 대극전(제2차 대극전) 등 2 개의 대극전이 확인되었습니다.

제1차 대극전원은 남북 약 320m, 동서 약 180m로 구획되어 있는데, 북쪽을 한 단 높여 대극전과 後殿을 남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단(壇)의 남쪽은 의식을 행할 때 귀족이 정렬했던 광장입니다. 이는 당나라의 장안성 대명궁(大明宮)의 함원전(含元殿)을 모방하여 만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위는 흙으로 다져 만든 회랑으로 둘러싸여 있고 남쪽에는 남문, 그 동서쪽에는 누각이 있습니다.

제1차 대극전 건물은 구니경 천도시에 회랑과 함께 해체되어 이축되었습니다. 그 후, 구니 경 대극전은 야마시로 고쿠분지(山城国分寺)에 시입(施入)되었는데 현재도 당시의 초석이 남아있습니다.

나라시대 후반의 제2차 대극전은 제1차 대극전이 있었던 주작문의 북쪽 구획이 아닌 다이리(内裏: 천황의 거처)가 있는 동쪽 구획에 세워졌습니다. 제1차 대극전이 있던 장소는 대폭 개조되어 쇼토쿠 천황(称徳天皇)의 서궁(西宮)으로 이용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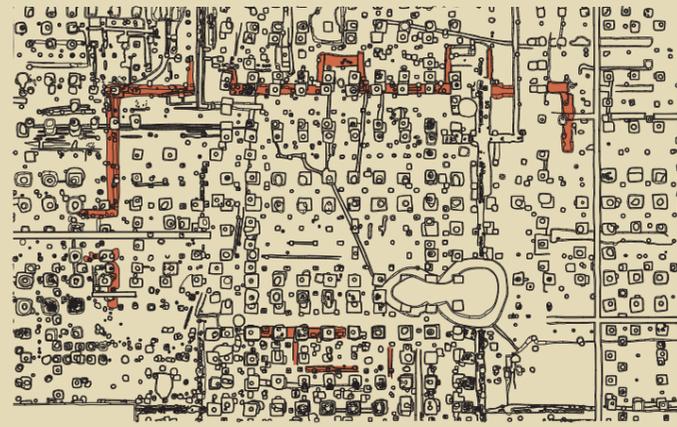
제1차 대극전원 건물의 복원도

제1차 대극전원지구 관련 연표

和銅3년 (710)	3월 10일	平城 천도. 대극전은 미완성인가 (大極殿院 整地土 출토 목간)
靈龜元年 (715)	1월 1일	대극전에서 원일조하 (元日朝賀) 를 행하다. (이후, 養老3년 (719), 神龜元年 (724), 神龜4년, 神龜5년, 天平2년 (730), 天平12년에도 조하 (朝賀) 기록이 보임)
	9월 2일	대극전에서 겐쇼 천황 (元正天皇) 이 즉위하다.
養老元年 (717)	4월 25일	西朝에서 오스미·사츠마코쿠 (大隅·薩摩国) 하야토 (隼人) 의 풍속과 가무를 보다.
神龜元年 (724)	2월 4일	대극전에서 쇼무 천황 (聖武天皇) 이 즉위하다.
天平元年 (729)	3월 4일	대극전에서 서위 (叙位)·임관 (任官) 을 행하다.
	6월 24일	대극전 閣門에서 隼人 (하야토) 의 풍속과 가무를 보다.
	8월 5일	대극전에서 天平이라 연호를 고치라 명하다.
天平4년 (732)	1월 1일	대극전에서 원일조하 (元日朝賀) 를 행하고, 천황이 처음으로 면복 (冕服: 중국풍의 관과 예복) 을 입다.
天平7년 (735)	8월 8일	대극전에서 오스미·사츠마코쿠 (大隅·薩摩国) 하야토 (隼人) 의 조공을 받다.
天平8년 (736)	1월 17일	남루에서 군신들이 踏歌節 (토우카노세치) 연회를 개최하다 (類聚国史) . 이 무렵까지 남쪽 흙으로 다져 만든 회랑에 동서 누각을 증설하다 (SD3715출토 목간) .
天平9년 (737)	10월 26일	대극전에서 금광명최승왕경 (金光明最勝王經) 을 강설하다.
天平12년	1월 17일	대극전 남문에서 대사 (大射) 를 보다.
	12월 15일	恭仁京으로 천도. 그 후 대극전과 회랑을 恭仁宮으로 이축하다.
天平18년 (746)	9월 29일	恭仁宮 대극전을 山背国分寺로 시입 (施入) 하다.
天平勝宝5년 (753)		이 무렵 대극전원 남쪽의 동서 누각을 해체하였나 (동서 누각 출토 목간) .
天平神護元年 (765)	1월 1일	西宮 前殿에서 원일조하 (元日朝賀) 를 행하다 (類聚国史) .
宝龜元年 (770)	8월 4일	쇼토쿠 천황 (称徳天皇) 이 서궁 침전에서 붕어하다.

제1차 대극전 발굴조사

제1차 대극전의 발굴조사는 1970, 1971, 1980년에 실시되었습니다. 기단과 초석의 흔적 등은 이미 소실된 상태였으며 대극전의 기단 외장에 사용된 지복석 (地覆石) 을 뽑아낸 흔적을 확인하였습니다 (도면 색깔 부분) .



제1차 대극전 유구 평면도



유구 발굴 상황 (건물의 서쪽 절반 부분. 사람은 기둥 추정 위치. 남서쪽)



제1차 대극전 복원의 사고 방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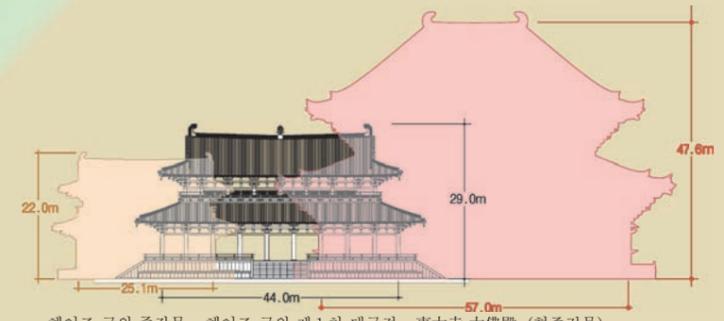
제1차 대극전 복원의 가장 큰 단서가 되는 것은 발굴 유구와 기와, 석재 등의 유물입니다. 제1차 대극전이 이축된 구니 궁 대극전터의 유구도 가미하여, 기단의 형태와 건물의 평면, 규모를 복원되었습니다. 또한 복원 연구에 있어 『続日本記』 등의 문헌 사료나 『年中行事繪卷』 등의 회화 자료도 빠트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단 위에 세워진 목조 부분의 형태를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존하는 고대 건축을 조사 연구함으로써 유구를 통해 복원되어진 기단과 건물 평면에 일치하는 건물을 추정하였습니다.

제1차 대극전은 그 기능과 상징성, 동시대의 사원 금당의 형식으로 보아 중층 건물이었다고 추정하였습니다. 평면상으로도 입면상으로도 거대한 규모를 지닌 대극전은 고대 건축 기술의 한계에 도전하는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존하는 고대 건축의 구조, 의장, 기법을 철저히 재분석하고 기술의 원리를 추구하여 유구에 맞는 형태를 모색하였습니다.

중층 건축의 기본 구조는 현재 유일한 중층 금당인 호류지 금당을 모방하여 합리적인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공포나 처마의 형태는 시대가 비슷한 야쿠시지 동탑을 본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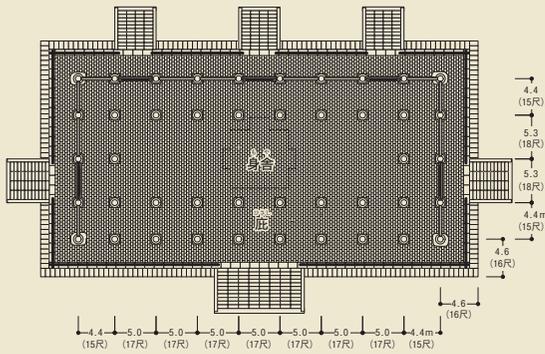
『年中行事繪卷』에 그려진 헤이안 궁 대극전



헤이조 궁의 주작문 헤이조 궁의 제1차 대극전 東大寺 大佛殿 (현존건물)

제1차 대극전의 크기 비교

평면



제 1차 대극전 복원 평면도

기단은 이중 기단의 형식으로 복원하였습니다. 전체가 동서 180척 (53.2m), 남북 97척 (28.7m) 으로 상부 기단의 규모는 173척 × 90척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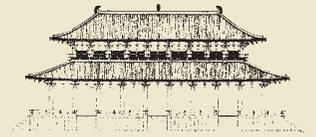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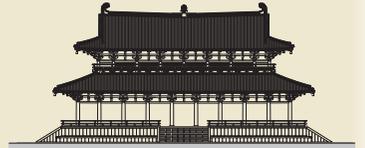
건물의 1층의 규모는 동서 9칸 149척 (44.0m), 남북 4칸 66척 (19.5m) 입니다. 정면 17척 (5.0m) × 7칸, 측면 18척 (5.3m) × 2칸의 몸체 (身舍: 건물의 중심부분) 의 둘레에는 길이가 15척 (4.4m) 인 차양이 둘러져 있습니다. 『年中行事繪卷』에 그려진 헤이안 궁 (平安宮) 대극전의 형식 등으로 보아 기둥 사이의 정면은 모두 개방되었고 차양의 양측면과 뒷쪽은 벽과 문짝으로 막혀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2층은 호류지 금당 (法隆寺 金堂) 을 모방하여 1층 몸체보다 각 면이 0.5척씩 넓고 기둥 간격은 1층보다 1칸씩 적은 정면 8칸, 안길이 3칸의 규모로 하였습니다. 각 면의 끝은 토벽, 그 외 부분은 살창으로 하였고 살창 중앙에는 셋기둥 (間柱) 을 세웠습니다.

기본적인 구조와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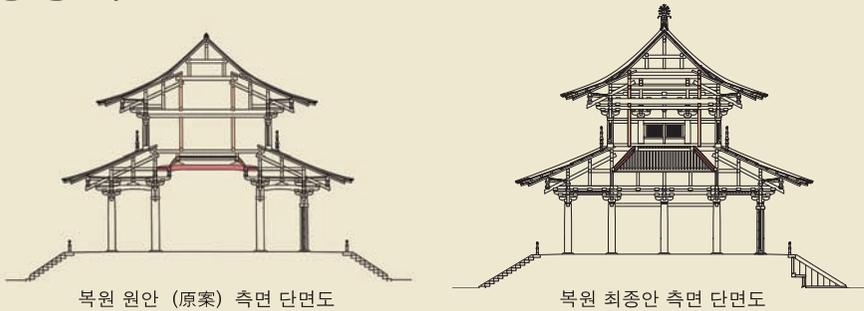
지붕의 형태

2층의 지붕 형식은 양 측면이 삼각형인 팔작지붕 (入母屋造) 으로 복원하였습니다. 『年中行事繪卷』에 그려진 헤이안 궁 대극전의 지붕 형식 및 나라시대 이전의 중층 사원 금당의 사례 등을 통해 추정하였습니다. 연구 과정에서는 우진각 지붕 (寄棟), 겹지붕 (鎩葺) 으로 만드는 것도 검토하였습니다.



지붕형식 구상안 (위: 팔작지붕 최종안, 아래: 우진각 지붕 안)

중층 구조



평면이 대규모인 한편 중층인 대극전은 고대의 기술에서 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건물입니다. 중층 건축의 특징을 조사한 결과, 현재 유일한 중층 금당인 호류지 금당의 형식이 뛰어난 합리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대극전의 구조도 그 원리를 모방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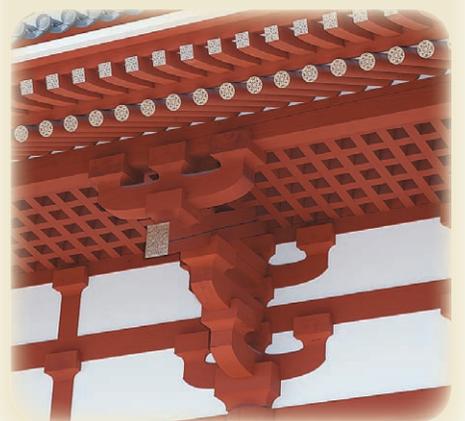
대극전은 몸체의 안길이 깊기 때문에 동자기둥을 2층사이에서 지탱하도록, 1층 천장보다는 위에 세워야 합니다. 복원 원안에서는 이 동자기둥을 세우기 위하여 도쇼다이지 (唐招提寺) 의 금당을 참고로 1층 몸체에 대들보를 걸쳐 놓았으나 이로 인해 기둥 위의 공포에 큰 뒤틀림이 생기게 됩니다. 복원 최종안에서는 호류지 금당의 형식을 기초로 하여 천장의 지륜 (支輪) 이 버팀대로서의 구조적 역할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지붕의 하중을 합리적으로 1층에 전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호류지 금당을 모방하여 지붕을 받치는 지붕틀을 2층 기둥의 중간에 배치하여 1층의 기둥과 위치를 맞췄습니다 (복원 최종안 정면 단면도 참조). 이는 지붕틀의 하중과 2층 처마의 하중을 각각 2층의 기둥과 동자기둥에 분담시켜 1층에 전달하는, 중층 건축만의 독특한 구조상의 고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공포와 처마

처마의 돌출 길이는 16척으로 복원하고 야쿠시지 (藥師寺) 동탑을 모방하여 서까래를 2단으로 건 겹처마로 하였습니다. 처마는 전체적으로 휘어져 있으나, 특히 양 끝을 강하게 휘어 올렸습니다. 휘어진 형태를 만들기 위해 바깥 기둥은 바깥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높게하는 「귀솟음」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공포는 처마의 돌출길이가 16척임을 볼 때 고대에 가장 격이 높은 삼출목 공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형식, 의장 모두 시대가 비슷한 야쿠시지 동탑의 공포를 본뵈었습니다. 두공에는 곧은 목재와 나무의 섬유를 직교시켜 균열을 막는 「木口斗 (고구치마스)」 수법을 이용하였고, 정면에는 연륜이 보이는 마구리먼이 향해 있습니다. 주두나 하양 끝의 두공 등 하중이 실리는 부위에는 느티나무 목재를 사용하였습니다.



고란 (高欄: 높은 난간)

고란은 기단 위와 1층 지붕 위의 주위에 둘러져 있습니다. 호류지 금당, 야쿠시지 동탑을 본떠 3단의 가로재(橫材)를 동자기둥으로 지지하고, 2층에는 밑에 세 개의 두공과 인자형(人字形) 동자기둥을 넣은 형식으로 하였습니다.

마구리나 못이 박힌 부위는 빗물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금구를 박았습니다. 동자기둥의 윗부분에는 오행색에 해당하는 다섯색의 옥을 배열하여, 보주형 금구로 장식해 놓았습니다.



금구 (金具)

풍탁은 지붕의 네 귀퉁이에 있는 추녀에 매다는 금속장식으로 금동제입니다.

종 모양의 탁신 내부에 판 모양의 풍초가 매달려 있어, 바람에 흔들리면 소리를 냅니다.

마구리 금구는 부식되기 쉬운 서까래, 추녀, 하양 끝의 마구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장식의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문양은 大官大寺(다이칸 다이지)에서 출토된 추녀 끝의 쇠장식을 참고로 하면서 나라시대 전후의 문양 특징을 세부 분석한 결과, 8세기 초두에 어울리는 보상화 문양으로 새롭게 표현하였습니다.



기둥과 벽

기둥의 직경은 기둥 사이 간격의 1/4인 2尺4寸(709mm), 높이는 17尺(5.0m)로 하였고, 형태는 밑에서 1/3 위치부터 위로 갈수록 서서히 작아지는 형식으로 하였습니다. 나무는 붉은 흙으로 도장하였습니다.

벽은 노송나무 활재로 바탕을 짜고 초벽칠, 여물 등을 넣어 하는 중간칠, 백토로 마무리칠을 하는 전통공법으로 복원하였습니다.



현판

현판의 형태와 규모는 건물의 형식과 잘 걸맞습니다. 고대의 대규모 건물에 어울리는 현판으로 문과 다리가 붙은 형식으로 복원하였습니다.

글자는 작성 연대가 비슷한 「長屋王願經」(712년)의 奥書에서 따왔습니다.



외부 형태



치미와 용마루 중앙 장식



용마루 중앙 장식은 동시대의 중국에서 볼 수 있는데 일본에서도 西大寺藥師金堂에 장식되어 있습니다. 용마루 중앙부의 덮개는 상징적인 것으로 변화되었다고 보입니다. 형태는 法隆寺東院夢殿의 보주를 참고로 하였습니다.



치미는 용마루, 너새, 박공 사이의 중요 부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빗물의 침투를 막는 역할을 하면서 건축의 격식을 표현합니다. 모양은 初唐 양식의 영향이 강한 형태로 복원하였습니다. 궁 안에서 출토된 예가 없는 것으로 보아 금동제로 생각합니다. 총 높이는 2.58m에 이릅니다.

지붕 기와



제1차 대극전원 출토 막새

기와는 출토 유물을 충실하게 복원하였습니다. 「유황연기에 그을린 은」과는 다른 차분한 흑색은 대극전 출토 기와 특유의 색으로, 당나라 장안성의 대명궁(大明宮)에도 사용된 검은 기와를 모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마루, 너새, 추녀마루의 앞과 끝 부분 등 비를 막는 부위의 마감은 法隆寺玉虫厨子 및 중국, 한국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기능과 형태가 일치한 고대 형식으로 복원하였습니다.



기단·계단

발굴에서 확인된 기단 외장파 계단의 흔적에서 도출한 치수를 기준으로 기단의 높이와 계단의 경사를 검토하였습니다. 계단의 경사는 제2차 대극전 출토 널판돌과 구니궁(恭仁宮) 대극전의 계단 유구를 참고로 약 32도로 하였습니다. 기단의 높이는 계단의 경사와 계단의 튀어나움을 토대로 11尺5寸(3.4m)로 하였습니다. 이 높이는 통상적인 1층 기단보다는 현격하게 높기 때문에 호류지 금당을 모방하여 이중 기단으로 복원하였습니다. 석재의 종류는 龍山石(타즈야마ishi)라는 兵庫県(효고켄)의 응회암입니다.



호류지 금당의 이중 기단

초석과 부석(敷石)

초석은 제1차 대극전을 이축한 구니궁(恭仁宮) 대극전 터에 남아 있던 초석을 토대로 복원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석재는 응회암이지만 네 귀퉁이의 석재는 화강암을 사용하였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하중이 실리는 부분에는 강고한 석재를 사용했던 고대의 지혜가 엿보입니다.



구니궁(恭仁宮) 대극전터에 남아있는 초석(위: 화강암, 밑: 응회암)

구니궁 대극전터의 응회암 초석에는 귀퉁이에 깨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포석을 끼워 맞추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며, 기단 위의 포석을 건물과 평행하게 깔아 놓는 가로깔기(布敷)로 뒤어져 있습니다.



